

장 영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아의 보육경험과 애착유형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강 유 선

유아의 보육경험과 애착유형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장 영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강 유 선

인 준 서

강유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세 유아의 보육경험(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보육 시간)과 애착유형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기에 보육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의 안정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보육경험은 차이가 있는가?
2. 보육경험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동구, 영등포구, 중랑구 지역에 있는 총 10개의 어린이집 만 3세반에 3개월 이상 재원중인 유아 118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담임교사이다. 유아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Bretherton 등(1990)의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 ASCT)를 이진숙(2001)이 번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cGrinnis와 Goldstein(1990)이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기술상황척도 'Skill Situations Measure'를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가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보육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조혜진(2004)이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보육경험에 관한 질문으로 보육을 시작한 시기, 현재의 주당 보육 시간, 총 보육기간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다중회귀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SPSS 12.0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보육경험 변인 중 유아의 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보육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안정애착인 경우가 불안정애착인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늦으며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은 짧게 나타났고, 불안정애착인 유아가 안정애착인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빠르며 총 보육기간과 주당 보육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보육경험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보육경험을 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 보육시간의 3가지 변수로 하여 이것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어떠한 변수가 사회적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의 두 변인이 사회적 능력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시작 시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보육경험	6
1) 보육의 개념	6
2)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과정	8
3) 보육경험의 변인	10
2. 애착유형	15
1) 애착의 개념	15
2) 애착의 측정 도구	16
3. 사회적 능력	19
1) 사회적 능력의 개념	19
2) 사회적 능력의 측정 도구	21
4. 선행연구	23
III. 연구 방법	28
1. 연구 대상	28

2. 연구 도구	30
3. 연구 절차	37
4. 자료 분석	40
IV. 결과 및 해석	41
1. 애착유형에 따른 보육경험	41
2. 보육경험에 따른 사회적 능력	43
V. 논의 및 결론	46
1. 논의	46
2. 결론 및 제언	5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특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	29
<표 2> 연구대상 유아의 보육경험 특성	30
<표 3>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의 제목과 주제	32
<표 4> 애착 관련 이야기의 유형 평정 기준	34
<표 5> 유아의 애착유형 분류 기준	35
<표 6>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내용	36
<표 7>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보육시작시기	41
<표 8>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총 보육기간	42
<표 9>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주당 보육시간	42
<표 10> 보육경험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4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는 유아와 가족을 둘러싼 생활환경이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양육의 문제는 핵가족화, 기혼 여성들의 사회활동 급증, 결혼가정의 증가 등에 따라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의 요구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최근 10여년 사이에 국·공립 영유아보육시설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이후 이제 보육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문제로서 수요와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여성부 연도별 보육통계(2005. 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1995년 9,085개소에서 2004년 28,040개소로 증가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도 29만명에서 97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취원연령은 점차 하향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린 시기부터 타인양육을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육기관에서 지내는 시간과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보육경험이 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영유아기에 형성된 애착 및 사회적 능력은 이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Matias, Arend, & Sroufe, 1978; Sroufe, 1983) 보육경험과 유아의 애착형성 및 사회적 능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보육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보육경험 자체가 영아

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로서 보육경험의 유무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 일부 학자들(Aureli & Procacci, 1992; Harper & Huie, 1985; Howes & Hamilton, 1993; Hoffman, 1984)은 보육시설에서 또래들과 경험이 많았던 영아들이 이후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협동적이고 또래 지향적이었으며 보육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일부 학자들(Belsky, 1988; Park & Honing, 1991)은 출생 초기에 보육 경험을 한 영유아가 공격성과 위축성이 높고 성인에 대한 순응성은 낮으며,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보다 신체적, 언어적으로 더 공격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육경험이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보육경험과 애착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도 일부 학자들(Barglow et al., 1987 ; Belsky, 1986; Belsky & Rovine, 1988 ; Blehar, 1974; Kim, 1992; Lamb & Sternberg, 1990)은 영아기에 주 20시간 이상의 타인양육 또는 종일(full-time)보육을 경험 하면 어머니에 대해 불안-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며 보육의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였다. 반면 이와 상반된 연구들(Clark-Stewart, 1989; NICHD, 1997; Phillips & Howes, 1987)은 보육경험이 영아의 애착발달에 있어 결정적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보육경험과 유아의 발달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탁아경험 유무와 유아 발달과의 관계(김향화, 1993; 양안나, 1990), 보육시설 및 보육 경험과 유아의 발달 및 특성에 관한 연구(김미자, 1995; 김숙령, 1997; 박숙영, 1994; 이남주, 1999; 조방제, 1996; 최정아, 2001), 보육경험과 가족 변인 및 아동특성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고은주, 2004; 엄성애, 2003; 양연숙, 조복희, 1996; 조혜진, 2004; 하지영, 2004), 어머니 및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성능력 차이에 관한 연구(김숙령, 1996; 조은영, 1996)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기관에서의 보육경험과 애착유

형 및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세 유아의 보육경험(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보육 시간)과 애착유형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기에 보육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의 안정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보육경험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육경험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1) 보육경험

보육경험은 보육 시작시기와 총 보육기간 주당 보육시간의 3가지를 의미한다.

(1) 보육시작 시기

보육시작 시기란 유아가 어머니 이외의 양육자로부터 처음 양육을 받기 시작한 시기를 의미한다. 어머니 외의 양육자는 보육교사, 친척, 개인 보모를 포함한다.

(2) 총 보육기간

총 보육기간은 유아가 보육을 경험한 전체 기간을 말한다.

(3) 주당 보육 시간

현재 유아가 1주일 동안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합을 말한다.

2) 애착 유형

애착은 ‘표상에 의한 측정도구를 통해 평가된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로 그 유형이 안정애착, 불안-회피 애착, 불안-비조직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정과 불안-회피 애착 2가지만으로 분류한다.

3) 사회적 능력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동시에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으로 학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포함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경험의 질적 측면인 보육기관의 종류 및 보육담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측면인 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 보육 시간만을 고려하여 연구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주당보육 시간에 있어서 현재 유아가 1주일 동안 받고 있는 시간만을 측정하였기에 이전의 주당보육시간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등포구, 중랑구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만 3세반에 재원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모든 보육경험이 있는 유아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도구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 ASCT)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상황 척도 'Skill Situations Measure'는 국내에서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연구자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러나 면접이나 유형분류 등에서 연구자의 주관성 및 해석상의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연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보육경험

1) 보육의 개념

보육의 전통적인 개념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시간 타인의 보호를 받거나 아동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과 교육 및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식과 안식처 같은 보호를 제공하는 탁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1956년 UN보고서에서는 보육을 ‘가정에서의 아동보호가 보충될 필요가 있을 때 낮 동안 아동이 집 밖에서 보호되도록 고안된 서비스’라고 하였다. Costin(1972)은 보육사업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아동 개인의 성장단계, 일관된 양육, 지원적 정서대책,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에 대한 보호 및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자극적 경험을 보육사업 프로그램으로 지적하면서, 부모가 낮 시간 동안에 어떠한 연령층이건 자녀보호를 위하여 선택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책이라 하였다. 한편 Fink(1988)는 특히 보육을 저소득층 가정과 결손가정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아동의 성격적 욕구, 교육적 욕구, 건강적 욕구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사회사업가, 교육자,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협동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보육사업에 전문가들의 협조적 접근을 강조하게 부각시켰다. 즉 보육은 부모의 보호에 대한 대리적 개념이 아니라 보충적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서 아동이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계층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영. 유아 보육법이 시행되고부터 탁아 대신 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합성어(educare = care + education)로 표현된다. Caldwell(1992)은 보육이라는 개념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하는 기능으로써 제시하였다.

오늘날 보육은 취업모의 증가 및 근무조건의 다양화, 보육대상의 보편화 등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보육은 보호와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기숙(1996)도 보육이란 과거에 복지차원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포괄적인 보호·교육의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은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 없이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미래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보육정책을 자국의 우선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인해 보육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이란 아동들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영양,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보호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하겠다.

2)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최초로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증가하는 탁아사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1952년 10월 ‘후생시설 운영 요령’이 마련되었다.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탁아시설’이라는 용어와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배치기준, 탁아기간, 보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때부터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0년대 후반 여성의 사회참여가 본격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보육은 요보호 아동 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하에 정부는 1981년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고 1982년 3월 26일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탁아소, 새마을협동 유아원과 같은 아동관련 시설들은 내무부가 주관하는 ‘새마을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흡수·통합되었으며(2005, 보육사업안내), 이것은 학령 전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설로서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탁아기능을 담당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 전략과 산업화에 따라 기혼여성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민간인들에 의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지역사회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 12월 노동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직장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탁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자 보건복지부는

1989년 9월 19일 저소득층 맞벌이 자립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1990년 1월 9일 동법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공포하여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칙을 제시하면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단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한 ‘영유아보육법’을 1991년 1월 제정·공포하였으며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유희정(1997)은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과 보호자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인식 아래 국가와 기업주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간 문교부, 내무부, 노동부 등에서 분할, 관장하여오던 영유아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다고 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육비용 면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일반가정의 자녀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 및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개정 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과 함께 2004년 6월 12일 영유아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어 보육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3) 보육경험의 변인

인간은 성장 발달함에 따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 참여하게 된다. 취학 전 시기인 유아에게 있어서 가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미시체계는 보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여성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의 취학 전까지 또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시 까지 일을 그만두었다가, 그 이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취업 증가,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족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취원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영유아들은 출생 후 어린시기부터 부모가 아닌 타인의 보호를 받으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과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육경험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활발하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아동의 발달에 보육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Clarke-Stewart, 1988; Phillips, McCartney, Scarr, & Howes, 1987; Thompson, 198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에 걸쳐 보육기관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사회·정서적 적응이 더 좋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elsky, 1994, 2001).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그러한 일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들은 보육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이후의 아동발달에 대한 초기 보육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eld, Masi, Geldstein, Perry, & Park, 1988; Howes, 1988; MacCrae & Herbert-Jackson, 1975; McCartney & Rosenthal, 1991; Prodromidis, Lamb, Sternberg). 이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보육교사와 교실 구성원이 안정성일수록 아동은 보육기관에서 보다 잘 생활하며(Schipper, Tavecchio, van IJzendoorn, & Linting, 2003) 보육기관에서 보

낸 시간의 양은 아동들이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Pianta & Cox, 1999).

보육의 안정성에 대해서 Clarke-Stewart(1987)는 잦은 타인양육자의 변경은 좋지 못한 양육환경을 의미하며 양육환경의 일관성이 양육의 질적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 척도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ummings(1986)와 Scaracher(1989)는 안정 애착의 경우 불안정 애착보다 타인양육자의 변경횟수가 적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타인 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양육될 때 영아가 어머니로부터의 격리 및 타인양육경험에 대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Belsky와 Rovine(1988)과 Benn(1986)은 타인양육자의 변경횟수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유형과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의 효과는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함께 발견되고 있다. 대체로 보육경험이 많은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높아서 또래 지향적임을 나타내는(Aureli & Procacci, 1992; Hult, & Frodi, 1988; Harper & Huie, 1985; Howes & Hamilton, 1993; Hoffman, 1984) 반면, 출생초기에 보육경험을 한 아동이 공격성과 위축성이 높고 성인에 대한 순응성이 낮다는 상반된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Belsky, 1988; Honig & Park, 1991).

한편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많아지고 보육경험 시작시기가 빨라지면서 보육경험의 양과 보육시작 시기는 많은 연구들의 초점이 되어왔다(Bates et al., 1994; Belsky & Eggeneen, 1991; Hegland & Rix, 1990; Honig & Park, 1993; Schindler, Moley, & Frank, 1987; Vandell & Corasaniti, 1990). 이에 관한 연구들은 보육시작 시기나 보육시간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면서 영아기에 보육을 시작한 아이들이 늦게 보육을 시작한 아이들보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불복종한다고 보고하였다(Belsky, 1986; Hakins, 1985; Vandell

& Corasaniti, 1990). 그러나 생후 1년 이내에 시작한 보육이나 장시간의 보육이 더 늦게 보육을 시작한 아이들보다 학령전기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욱 사교적이고 사회적으로 더욱 유능하여 아동의 발달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Andersson, 1992; Field, 1991, Howes, 1988). 최근 NICHD의 연구결과(NICHD, 2003)에 의하면 영아기에 시작한 보육이나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에 걸쳐서 경험한 누적보육시간이 54개월 된 아동들의 문제나 성인과 아동간의 갈등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Belsky(2001)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즉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에 걸쳐 경험한 보육경험의 누적시간은 특정 발달시기에 보육기관에서 보낸 시간의 합보다 사회·정서적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작 시기와 보육 이용시간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이 보육기관에서 보냄으로써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애착 이론가들에 의해 가장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생후 첫 1년이 되기 전 어머니가 취업하는 경우나 보육경험의 양이 많을수록 영아는 어머니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며(김숙령, 1997; Belsky & Rovine, 1988), 또래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또래 지향적이 되고 불순응적이고 공격적으로 나타나기 쉽다고 보는 견해도 나타났다(Belsky & Steinberg, 1997; NICHD, 1988).

이외에도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시작 시기보다는 보육시간이 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경자(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아동들이 타인양육을 애착이 형성되기 9개월 이전에 시작하였거나 9개월 이후에 시작하였건 간에 타인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타인양육 경험이 없는 아동들보다 성인에게 더 불순응하기 쉬우며, 사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주당 20시간 이상의 종일제 영아보육은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공격성, 비동조성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육시간

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arr(1988)는 보육의 전반적인 질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의미 있게 예언하였으며 보육의 질 중에서도 특히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높을 때 사회성 발달이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의 효과가 비일관적인 이유는 보육경험 유무보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에 관련된 보육의 질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되고 있다. 즉, 보육의 질은 아동들의 행동이나 적응을 가장 일관적으로 예측해주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Burchinal, Roberts, Nabors, & Bryant, 1996; Clarke-Stewart, 1989; Howes, Phillips, & Whitebrook, 1992; Howes, Smith, & Galinsky, 1995; Lamb, 1998), 보육의 질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초기 보육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보육의 질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보육기관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들(Burchinal, Roberts, Nabors, & Bryant, 1996; Howes, Smith, & Galinsky, 1995; NICHD, 1997a, 2003)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간이나 시작시기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비일관적인 것과는 달리, 보육의 질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일관적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동들은 유능한 양육자에 의해 사회화 경험과 또래경험이 증대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훨씬 더 적응성이 높으며 사회·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며 아동들이 성인 및 또래와 더욱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owes, 1987; Howes & Unger, 1989, Rubenstein & Howes, 1979). Phillips, McCartney와 Scarr(1987)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환경의 전반적인 질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의미 있게 예언하였으며, 특히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높고 아동-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낮을 때 사회성 발달이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영아기에 보육의 질이 낮은 보육기관에 들어간 아이들은 학령전기에 또래와의 관계에

서 어려움이 컸으며, 더욱 산만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으며 교사에게 더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Howes, 1990). 또한 낮은 질의 보육기관에 있는 아이들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유능하지 못하고(Howes, 1990) 목적 없이 방황하거나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McCartney, 1984) 보고하고 있다. 즉 보육경험과 관련된 변인들, 주당보육 시간, 보육시작 시기 등보다 보육의 질이 가장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도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보육 프로그램과 보육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동발달이나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유사한 결론을 보고하고 있다(고은주, 2004; 박경자, 1992; 박성연, 2003; 양연숙, 조복희, 2001a, 2001b).

종합해보면, 보육의 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들은 대체로 보육경험의 유무나 보육시간, 보육시작 시기, 보육의 질 변인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각 연구에 따라 각 변인별 측정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개개 아동이나 가족 변인들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보육시작 시기와 보육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질이나 양육행동, 또는 기타 가정의 심리적 요인 등 여러 환경 체계들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2. 애착유형

1) 애착의 개념

영아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성장의 기초가 되는 인지, 언어, 신체, 사회, 정서 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영아가 양육자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양육자와 영아의 강력한 정서적 유대인 애착으로부터 시작한다.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는 영아가 특정인과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유대로서 영아가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에게 접근을 추구하고 지속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Bowlby, 1958;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또한 Bowlby(1969)는 애착을 영아가 양육자를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환경을 탐색하는 동안 안전 기지로서 양육자를 이용하려는 생물학적 경향이라고 정의하면서, 애착은 미소짓기, 울기, 빨기, 따라가기, 매달리기의 5가지 생득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Papalia와 Olds(1979)에 의하면 애착이란 다른 사람들로 부터 구분되어지며 두 사람 간에만 형성되는 능동적 · 애정적 · 상호작용적 관계라고 하였다.

모든 영유아들은 일정한 단계대로 애착발달이 진행되지만 영유아들이 부모에게 형성하는 애착의 질은 각각 다르다. 유아들은 부모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다른 내적 표상 혹은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만든다. Bowlby(1969/1982)는 애착의 주관적이고 경험적 측면을 ‘내적 실행 모델’로 설명하였다. 내적 실행 모델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 사건에 대해 갖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 대상과 자아의 애착 관련된 행동, 사고, 느낌의 조절, 해석, 예견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므로 애착대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지지를 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

성한 아동은 자아와 애착 대상에 대해 안정적 실행 모델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갖을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자기 가치와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여 불안정 실행모델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고 불안함과 부정적 기대와 믿음을 형성하여, 이후 관계에서 불신, 무감각, 분노, 공격, 공감의 부족 등을 나타낸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재인용).

Holmes(1992)도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안정 애착이고, 애착 대상에 대해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심 등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이라 하였다.

Ainsworth(1979)는 Bowlby의 애착이론을 한층 더 확고히 하면서 애착을 사람이나 동물이 자신과 다른 특정한 개체 사이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로 이러한 유대관계가 형성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속된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확신감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각 개인은 이러한 발달을 통해 적절하게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에게 받은 안정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Ainsworth, 1978).

이상과 같이 애착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애착이란 지속성이 있는 유대관계로서 두 사람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착이란 특정인과 형성하는 능동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로서 상호작용적이고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애착의 측정 도구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초기에는 관찰법을 사용했으나 이는 관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한번에 많은 면을 관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Bowlby가 애착이론을 주장한 이후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Ainsworth는 Blehar, Waters와 함께(1978) Bowlby의 이론에 근거하여 ‘낮선 상황’ 실험을 고안하였다. ‘낮선 상황’ 실험은 애착개념을 수량화하고 애착에 있어 개인차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생후 1년 동안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가정의 관찰을 토대로 한다. 이 실험은 실험실에서 영아가 어머니와 격리되거나 재결합되는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고 어머니와 영아간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방법이며 표준화된 실험절차와 점수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실험을 통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애착의 질을 형성하는 선행요인뿐 아니라 초기 애착으로 인한 이후 발달적 영향에 관한 실질적 자료들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Water와 Deane(1985)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낮선 상황실험이 어머니-유아관계의 질적인 측면만을 연구함으로써, 생애 초기 형성된 애착이 발달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낮선상황 실험은 실험실에서 관찰된 유아의 안전-기반 행동들이 유아의 애착 제어 체계의 활성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실험실 자체가 지니는 요구 특성과 한계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Pasada, Gao, Wu, Posada, Tascon, Sagi, Haaland & Synnevaag, Kondo-Ilemura, 1995). Bretherton(1992)역시 대부분의 애착연구가 ‘낮선 상황 실험’을 사용함으로써 가정이라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연구가 소홀하게 되어 애착 연구의 범위를 좁혀왔다는 비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애착연구가 낮선 상황이라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Waters와 Deane(1985)은 관찰에 기초한 애착 Q-set을 고안하였다. 이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유아의 가정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아가 애착대상과 상호작용 하는 동안 나타나는 행동들을

특징 지을 수 있도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카드의 형태로 되어 있다. 어머니 또는 훈련된 관찰자가 아동을 관찰한 후에 이를 근거로 각 문항이 아동의 행동을 잘 나타내주는지의 정도에 따라 아홉 개의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관찰 결과는 낯선 상황 실험과는 달리 연속된 점수로 나타나고 이 점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준거점수와 상관을 통해 구해진다. 이 Q-set방법은 안전-기반 행동에 초점을 둔 자연적 관찰기법으로 애착 행동의 양적인 개인차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머니가 분류하기에는 다소 어려우며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분류하는 동안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따라야 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영 · 박경자 · 나유미, 1997).

기존에 이루어졌던 관찰에 근거한 측정들이 애착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측정하는데 필수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한계가 있음이 지적됨에 따라 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적합한 평가방법이 요청되었다. 이에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는(1990)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를 개발하였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도구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관찰’에 초점을 둔 기존 방법과는 달리 유아의 자발적인 이야기를 사용하여 개인적 이야기(narrative)에서 나타난 표상을 측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가족인형과 소품을 사용하여 애착관련 주제의 이야기 도입부를 제시한 다음 유아가 나머지 이야기를 완성하게 되는데 애착은 안정, 불안-회피, 불안-비조직 애착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유아의 이야기 반응은 자아와 타자에 대한 내적 표상 즉 실행모델을 반영하는 타당한 도구로 입증되며, 최근 ASCT를 사용하여 유아의 내적 실행모델에 접근한 선행연구들(Andrews-Cameron, 1998; Page, 1998; 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 1999, 재인용)은 유아의 내적 실행모델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증거로 제공하였다. Page(1998)는 이 방법은 유아에게 친숙한 가족인형을 사용하고 구조화된 이야기 도입부를 제시하여 유아가 자발

적으로 이야기를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취학 전 유아의 인지구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3. 사회적 능력

1) 사회적 능력의 개념

인간은 출생시부터 사회적 환경에 접하게 되고 여러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로울 때는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지만,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할 때에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기 힘들며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부적응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과 발달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되는 능력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능력은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획득하는데 유용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Merrell, 1993, 1999, 재인용)

사회적 능력은 사회성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용어들로 개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이은혜, 1995), 사회적 능력은 타인과의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그런 기술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arason, 1981). 다시 말하면 사회적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권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정의되어진다. 그 관점은 크게 환경에 대한 적응의 측면, 인성적 구조적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

면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경에 대한 적응 측면으로서의 동물 행동학적 접근이 있다. 여기서 사회적 능력은 각 환경이 지니고 있는 상황들이 개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형성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연구된 것을 살펴보면 Bruner와 Connolly(1974)는 사회적 능력을 환경에 대한 적응 측면으로 파악하였고, White(1979)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리적, 정서적 자원을 얻어서 원활하게 사회로 향해가는 능력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법의 대표적 연구로 The Harvard Preschool Project(1978)을 들 수 있다(Wirth, 1980). 이 보고서에서는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3~6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란 어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른의 관심을 끄는 것, 어른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어른에게 애정과 적대감을 표현하며 성취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또래에게 경쟁심, 애정,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과 또래를 이끌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였다.

둘째, 인성구조적 측면으로서의 접근은 사회적 능력을 다양한 구성인자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연구된 것을 살펴보면 Baumrind(1973)은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생활을 위한 도구이며 우수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반응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력 등의 구성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Kohn과 Roseman(1972)는 사회적 능력을 관심, 호기심, 단호함 등의 긍정적인 항목과 관심과 결여, 회피 등 부정적인 항목을 구분하여 개인의 특질 및 성향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속성의 사회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보았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으로서의 접근은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대인관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Schneider(1993)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환경의 영향

을 강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적 능력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발달적으로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 능력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각 측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능력의 측정도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래가 평가하는 사회성 측정 방법,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가 측정 방법, 자연적인 상황이나 한정적인 상황에서 행해지는 행동관찰 측정 방법, 자기보고 평가방법이다.

먼저 또래가 평가하는 사회성 측정 방법은 초기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방법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인기도가 사회적 능력의 가장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유아의 또래 관계를 집단 내의 다른 유아들에 의해 평가하게 하여 또래 집단 내에서 유아의 사회적 지위를 발견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방법은 사회적 능력과 이후 적응 상태를 조사한 연구들에 의해 예언타당도가 확인되었고 (Roff, Sells, & Colden, 1972), 교사평가와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공인 타당도가 인정되었다(Foster & Ritchey, 1979)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회적 능력의 유무에 대한 분류만이 가능하고 어느 영역에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한다는 것과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두어 포괄적 수준에서 사회적 능력을 전체

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Schneider, 1993).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가 측정 방법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이루고 있는 여러 항목들을 요인 분석하여 만들어낸 척도를 통하여 부모 또는 교사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부모용과 교사용으로 구분 제작되어진 Pease, Clark 및 Crease(1979)가 개발한 Iowa Social Competency Scale(ISCS)가 있고 Kohn과 Rosman(1972)의 Social Competency Scale(SCS), Gesten(1976)의 Health Resources Inventory(HRI) 등의 교사용 평정척도가 있다. 이 방법은 유아의 행동을 보다 질적인 측면으로 측정 가능하고 유아의 행동에 나타난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두드러진 사건 및 부정적 행동에 대해 상황적인 특성도 측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을 성인의 관점으로 평가하여 특정 유아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나 편견 등 유아의 능력과 관련 없는 변인들이 부모나 교사의 판단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연적인 상황이나 한정적인 상황에서 행해지는 행동관찰 측정 방법은 보편적으로 가정이나 교실에서 훈련된 관찰자가 유아의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 및 대인관계 행동을 통하여 사회적 해결 방법을 관찰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의 질적인 측면을 기능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사회적 행동의 전후관계를 엄밀히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으로 어떠한 행동을 삼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화의 문제와 관찰 상황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Schneider, 1993, 재인용).

자기보고 평가방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 여부를 자신이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아동보다는 성인에게 많이 사용되었다(Spitzberg & Cupach, 1989). 이 방법은 공감, 사회적 단서 지각, 사회적 상황의 이해,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자신의 사회적 행동의 평가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의 요소들로서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의 작은 단편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Schneider, 1993, 재인용).

4. 선행 연구

영유아 보육이 확대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래로 보육경험이 영유아 및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Booth, 1992; Chehrazi, 1990; Fox & Fein, 1990; Lande, Scarr, & Gunzenhauser, 1989; McCartney, 1990).

보육경험과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보육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보육의 양(quantity)으로 (Barglow et al., 1987; Belsky et al., 1988; Schwartz, 1983; Vaughn et al., 1980)보육의 시기를 고려한 변인으로 애착 주제의 연구에서 강조되었다. 다른 하나는 보육의 질(quality)로서(Anderson, 1989; Howes et., 1986; Peterson et al., 1986; Phillips et al., 1987; Vandell et al., 1983)사회적 발달에 관계된 연구에서 강조되었다.

특히 외국에서는 발달영역별로 세분화된 연구, 즉 인지발달(Campell, Fletcher, Hoffmann, Horack, Ramey, 1987; Clark-Stewart & Fein, 1983)에 대한 연구와 사회정서발달과 애착이론(Bowlby, 1980; Clark-Stewart, 1989), 아동의 보육경험과 애착관계(Belsky & Rovine, 1988; McCartney, Phillips, Scarr, 1982), 보육기관의 질과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 (Clarke-Stewart & Gruber, 1984; Goelman & Pence, 1987; Schindler, Moley & Frank, 1987; Vandell & Corasaniti, 1990; Vandell & Powers, 1983), 발달상의 영향을 종단적 차원에서 본 연구(Howes, 1988; Vandell & Powells, 1983)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의 보육경험과 발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탁아경험의 유무와 유아 발달과의 관계(김향화, 1993, 양안나, 1990), 보육 시설 및 보육경험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곽주영, 1996; 권혜진, 1996; 김미자, 1995; 박종옥, 1998; 이남주, 1999; 최정아, 2001), 보육경험과 가족 변인 및 아동특성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고은주, 2004; 엄성애, 2003; 조혜진, 2004; 하지영, 2004) 등이 있다.

보육경험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발달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2가지 흐름으로 대별되어 왔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보육이 아동의 체발달 측면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동중심기관(Rutter, 1979, Belsky & Steinberg, 1978)으로 보면서, 보육경험을 한 아동이 더 사회적이고 협동적이며 과업에 몰두하고(Rubenstein & Howes, 1979), 또래관계에서 보다 사회적이었으며(양안나, 1990; Howes, 1988), 보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연구(Anderson, 1989, 1994)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보육이 아동발달에 치료될 수 없는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보면서(Belsky & Rovine, 1988, Bowlby, 1969, Vaughn등, 1985), 보육기관에서 양육된 아동이 늦게 참여한 아동이나 참여하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적 행동이 많고 성인에게 비순응적이며 타인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skins, 1985; Schwartz, Stickland & Krolick, 1974).

보육경험은 영유아의 인지 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과 정서발달,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각 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yle(1975)은 5~30개월 된 유아를 대상으로 7개월간의 보육경험이 있는 유아와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간의 지적 발달, 어머니와의 애착, 또래와의 상호작용, 신체적 건강 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보육경험이 있는 유아는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에 비해 평균 IQ가 더 높았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주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sky와 Steinberg(1978)도 저소득층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보육경험이 인지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정서

적 발달 및 부모와의 결속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육경험은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 유아들이 보육시설의 다양한 교구 및 전문적인 교사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인지적 자극을 받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놀이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azer, Hubbell, Murray, Rosche, & Royce, 1977). 뿐만 아니라 중류층 유아들도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유아간의 건강, 신체발달에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보육시설의 유아들이 사회성발달에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Schindler, Moley와 Frank(1987)는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보육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참여와 관계가 있고 특히 보육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였고 비참여 행동이나 방관자적 행동은 적게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Field와 그의 동료들(1988)의 연구에서도 영아기부터 미국대학부설 보육기관에 다닌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보육시설에 더 오래 다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유아가 방관자적 행동이나 혼자놀이를 더 적게 나타내었고 협동놀이,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Clarke-Stewart(1984), McCrae와 Herbert-Jackson(1976)도 종일제 보육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들에 비해 낯선 동료와의 관계에서 더 협동적이고 타인의 관점도 더 잘 이해하며, 유아의 문제해결 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조방제(1996)는 어린이집 보육경험이 취학 후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학 전 보육경험이 있는 아동은 무경험의 아동보다 사회 정서적 발달 면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영유아기 보육경험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시켜 불

안, 회피, 위축,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 행동과 함께 공격적, 불순응 등의 행동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Rubenstein, 1981; Schwarz, 1983; Haskin, 1985). Belsky와 Rovine(1988)은 영아기에 보육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이 영아들은 결국 유아기에 공격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며 고집이 세고 비협조적인 사회적 특징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Belsky(1988)는 보육기간과 이용시간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는데, 출생 후 첫 2년 동안 장시간의 타인양육을 받으면 영아와 부모간의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 할 위험이 있고, 주당 2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받는 것은 유아기에 회피-불안정한 애착의 발달 및 심리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아가 주당 30시간 이상 타인양육을 경험할 경우 영아중의 50%가 불안정 애착을 보였으며 이는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초기에 공격성, 사회적 부적응, 비동조성, 회피의 증가를 가져오는 위험요소라고 보고하였다.

Vandell과 Corasaniti(1990)의 연구에서도 조기 보육경험에 따라 8세 때 유아의 사회성, 정서 및 인지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영아기에 종일제 보육시설에 다녔던 유아는 또래 관계, 정서적 안정감에서 더 낮게 평가되었고 훈육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영아기 이후에 보육시설에 다녔던 유아의 경우도 시간제(주당 30시간 이하)로 보육시설에 다녔거나 가정에서만 양육된 유아보다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관계, 순응, 또래 지위, 학업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박경자(1991)는 영유아기에 다양한 타인 양육을 경험한 유아들의 학령 전기의 발달을 살펴본 결과 하루 중 부모와 격리되는 시간이 유아들의 인지 및 사회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김미자(1996)는 학령전기에 보육시설에 다닌 유아들이 가정에서 자란 유아들보다 자기 주장적이며

부산스럽고 경쟁적이며 또래에게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Kim(1992)은 이러한 연구결과들 간의 불일치는 부분적으로 연구방법상의 문제로부터 기인된 것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보육의 영향이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질적, 양적 특성과 가정 및 영·유아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보육경험과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육기관에서의 주당 탁아시간, 탁아 시작시기 및 탁아 안정성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이나 보육기관의 환경 및 보육교사의 질 등 질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확대하여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추세이다(NICHD, 1988, 2003a).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동구, 영등포구, 중랑구 지역에 있는 총 10개 어린이집의 만 3세반에 재원중인 유아 중, 해당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다니고 있는 유아 118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담임교사다. 연구 시작 시 연구 대상은 200명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의 부모를 통해 유아의 정확한 보육경험을 파악하고자 설문지를 200부를 배포하였으나 152부가 회수되었고, 애착유형 검사에서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명료하게 나뉘지는 118명이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남아 61명(51.7%), 여아 57명(48.3%)으로 남아가 다소 많았으며, 평균월령은 53개월이었다. 연구대상 부모의 변인 중 어머니 평균연령은 34.4세, 아버지는 37.4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아버지가 70명(59.3%), 어머니가 58(49.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직업 중 아버지가 사무직 40명(33.9%), 자영 상공업 30명(25.4%), 전문직 13명(11.0%) 등의 순서로 분포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기타 58명(49.2%)으로 주로 가정주부가 많았으며, 사무직 19명(16.1%), 전문직 14명(11.9%) 등의 순서로 분포를 나타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인 28.8%, 100~200만원 미만인 26.3%, 300~400만원 미만인 15.3%, 400~500만원 미만인 16.1%의 순서로 2004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723,000원인 것에 근거할 때(통계청, 2005) 본 연구 대상자의 소득수준이 중류층의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 특성(n=118)

변인	구분	빈도(%)	
유아 특성	성별	남	61(51.7)
		여	57(48.3)
	연령	41개월~50개월	35(29.7)
		51개월~55개월	52(44.1)
56개월~58개월		31(26.3)	
아버지 특성	연령	30~34세	22(18.6)
		35~39세	68(57.6)
		40~44세	25(21.1)
		45~49세	3(2.5)
	학력	대학원졸 이상	7(5.9)
		대졸	70(59.3)
		고졸	38(32.2)
		중졸이하	3(2.5)
	직업	노무직	4(3.4)
		기능직	12(10.2)
판매서비스직		3(2.5)	
사무직		40(33.9)	
자영상공업		30(25.4)	
전문직		13(11.0)	
관리직		8(6.8)	
기타		8(6.8)	
어머니 특성	연령	29세 이하	8(6.8)
		30~34세	58(49.2)
		35~39세	42(35.6)
		40세 이상	10(8.5)
	학력	대졸	58(49.2)
		고졸	56(47.5)
		중졸이하	4(3.4)
	직업	기능직	8(6.8)
		판매서비스직	8(6.8)
		사무직	19(16.1)
자영상공업		11(9.3)	
전문직		14(11.9)	
기타(주부 등)		58(49.2)	
가정의 총수입	100만원 이하	6(5.1)	
	100~200만원 미만	31(26.3)	
	200~300만원 미만	34(28.8)	
	300~400만원 미만	18(15.3)	
	400~500만원 미만	19(16.1)	
	500만원 이상	10(8.5)	

<표 2> 연구대상 유아의 보육경험 특성(n=118)

변인	구분	빈도(%)
보육시작 시기	1세 미만	14(11.9)
	1세 이상~2세 미만	28(23.7)
	2세 이상~3세 미만	26(22.0)
	3세 이상	50(42.4)
총 보육기간	1년 미만	29(24.6)
	1년 이상~2년 미만	34(28.8)
	2년 이상~3년 미만	33(28.0)
	3년 이상	22(18.6)
주당보육시간	20시간~40시간 미만	54(45.8)
	40시간~60시간 미만	46(39.0)
	60시간 이상	18(15.3)

연구대상 유아의 영유아기 보육경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위의 표 2와 같다. 유아의 보육시작 시기는 만 3세 이상부터 시작한 유아가 50명(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1세부터 2세 28명(23.7%), 만2~3세 26명(22.0%), 1세 미만이 14명(11.9%)이었다. 유아의 총 보육기간은 1~2년 미만이 34명(28.8%), 2~3년 미만이 33명(28.0%), 1년 미만이 29명(24.6%), 3년 이상이 22명(18.6%)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주당보육시간은 20~40시간 미만이 54명(45.8%)으로 가장 높았고, 40~60시간 미만 46명(39.0%), 60시간 이상 18명(15.3%) 순으로 현재 주당 평균 42.4시간 동안 타인 양육자 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으며 개별 유아마다 주당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120시간까지 보육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보육경험의 양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어머니용 질문지가 사용되었고 유아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각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경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육경험은 출생 후 유아가 처음 타인 양육을 시작한 보육 시작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 평균 보육 이용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어머니가 보육경험의 양에 대해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보육경험의 양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2) 애착 유형 검사

유아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험실에서의 낯선 상황 절차(격리-재결합)와 애착 Q-set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retherton 등(1990)의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 ASCT)를 이진숙(2001)이 번안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ASCT는 애착관계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애착측정 도구로서, 표준화된 실시절차 및 분석절차를 가지고 있다. ASCT에 사용되는 도구와 이야기, 실시절차 등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1) 애착유형 검사도구 및 이야기

① 애착유형 검사도구

ASCT에 사용되는 도구는 가족인형(어머니, 아버지, 두 자녀-자매/형제-, 할머니)과 각각의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소품들(테이블, 작은 접시들,

쥬스컵(병), 케익, 잔디, 바위, 작은 침대, 자동차)이다.

② 애착유형 검사의 이야기

ASCT는 1개의 워밍업 이야기와 5개의 애착관련 주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워밍업 이야기는 본 도구의 실시절차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서 애착과 관련이 없는 중립적 이야기인 ‘생일파티 이야기’로 시작된다. 유아에게 워밍업이야기를 실시한 후 5개 애착관련 이야기를 실시한다. 각 이야기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애착관련 갈등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ASCT)이야기의 제목과 주제는 표 3과 같다.

<표 3> 애착 이야기 완성과제의 제목과 주제

제 목		주 제
예비 과제	생일 파티 이야기	애착대상과 관련 없는 중립적인 이야기
1	쥬스를 엿질렀어요	권위 있는 애착 대상에 대한 두려움
2	무릎을 다쳤어요	애착 대상의 보호 행동을 이끌어내는 고통
3	내방에 괴물이 있어요	애착 대상의 보호 행동을 이끌어내는 공포
4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애착대상의 부재에 따른 격리불안과 대처능력
5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애착대상과의 재결합에 대한 반응

(2) 애착유형 검사 실시 절차

ASCT검사는 유아와 검사자간에 조용한 공간에서 서로 마주 앉아 개별 면담으로 진행한다. 검사자는 유아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연습 이야기를 실시하여 유아가 실시절차를 이해하였을 때 애착관련 이야기를 실시한다.

검사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애착관련 이야기를 제시한 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겠니?”라고 요청하고 유아가 가족인형과 소품을 사용하여 그 다음의 이야기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한다. 유아가 이야기를 완성하는 전 과정과 가족인형과 소품의 활동에 따른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면담자가 기록한다. 검사자는 제시된 핵심 주제에 대하여 유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비지시적 자극(prompt)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지어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첫째, 이야기의 주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유아가 각 이야기의 주제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쥬스 이야기’에서 “쥬스를 옆질렀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했니?”라고 말해준다. 둘째, 유아의 반응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가 행위자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 “누가 반창고를 붙여주었니?”라고 하거나, 말없이 인형을 움직이기만 할 때 “그 애가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질문한다. 셋째, 유아가 말이나 행동으로 이야기가 끝났음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유아의 보다 자세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또 다른 일은 없었니?”라고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한 반응을 암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다.

(3) 애착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의 애착유형은 Bretherton, Ridgeway와 Cassidy(1990), Goodman, Andrews와 Jones(1992)의 분류기준을 근거로 이진숙(2001)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 5개의 이야기에 대한 유형평정이 이루어지며, 각 이야기에 대한 유형평정을 토대로 유아의 애착유형이 분류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애착관련 이야기의 유형 평정

각 이야기의 유형 평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 애착 관련 이야기의 유형 평정 기준

유 형	평정기준
안정애착 기준	유아가 해당주제에 관해 3번의 질문 내에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야기는 청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일관성이 있고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불안-회피 애착 기준	유아는 이야기 주제에 관해 4번의 질문을 한 후에야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회피, 부정, 무시한다. 유아는 “모르겠어요”, “다른 이야기 해 주세요”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회피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방어하기 위해 단순히 이야기의 줄거리를 재연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불안-비조직 애착 기준	유아가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해결 또는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혼란스럽고 억제되지 않는 공격성이 포함된 괴상하고 비조직적 반응을 한다. 핵심 주제에서 내재된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일관성 없고 서투르게 반응하며, 초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② 유아의 애착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의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안정애착유형과 불안정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아의 애착유형 평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은 표 5와 같다. 유아의 애착유형검사는 본 연구자와 한 명의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이 함께 하였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는 Irwin Bushnell(1980)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91이었다.

<표 5> 유아의 애착유형 분류 기준

애착유형	분류 기준
안정애착	5개의 애착관련 이야기 중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 일관성있고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
불안정 애착	5개의 애착관련 이야기 중 3개 이상의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방어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불안-회피 형태가 나타나거나, 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불안-비조직 형태가 나타나는 것

3) 유아의 사회적 능력 측정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cGrinnis와 Goldstein(1990)이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기술상황척도 'Skill Situations Measure'를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가 수정·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kill Situations Measure'의 40개 문항을 개인 정서 조절 능력, 대인 관계 형성 능력, 유치원 적응 능력으로 3개 요인으로 범주화하며 각 범주마다 유아의 반응이 가능한 문항 각 5문항씩 선정하여 총 15개의

문항으로 유아가 각 문항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문항은 그림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시간 제한 없이 개인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개별 유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검사 후 내용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일 때 1점을 주고 공격적 반응, 무관련 반응, 무반응에는 0점 처리하였다.

따라서 한 유아의 점수는 최하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가 된다. 채점은 본 연구자와 한 명의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이 함께 하였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는 애착유형 검사와 마찬가지로 Irwin Bushnell(1980)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90이었다. 검사도구의 구성요인과 내용은 다음 표 6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표 6>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내용

요인	요인내용	그림검사번호
학교 적응능력	생각이나 느낌을 용기있게 말하기	1
	양해를 구하기	2
	지시에 따르기	3
	힘들어도 열심히 하기	4
	상황에 알맞게 부탁하기	5
대인관계 형성능력	친구들 놀이에 새로 참여하기	6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7
	친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8
	친구와 놀이감을 나누어 가지고 놀기	9
개인정서 조절능력	친구 도와주기	10
	친구로부터 소외당할 때	11
	화가 무조건 날 때	12
	친구가 놀릴 때	13
	친구가 공평하지 못할 때	14
	잘못된 행동을 한 후 벌을 받을 때	15

3. 연구 절차

1) 연구보조자 훈련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 이외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1인이 연구보조자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2회 연구보조자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유아 애착 검사 및 사회적 능력 검사 질문지의 내용에 관해 연구자가 설명하고 의문 나는 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 뒤 검사 질문지의 질문 내용과 자료 제시 방법(가족인형과 소품), 유아의 반응 기록표 작성 및 채점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익숙해지도록 훈련하였다.

2)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2005년 1월 6일~7일 2일 동안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예비 연구의 대상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S어린이집의 만 3세 유아 30명과 그 어머니 30명이었다.

(1) 애착 유형 검사

애착 유형 검사(ASCT)에 사용되는 이야기 및 도구, 실시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진 연구보조자간 훈련을 바탕으로 ASCT 실시절차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먼저 관찰자로서 보조연구자의 전체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유아들이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 사용되는 가족인형과 소품들이 유아에게 적절한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면접자가 이야기를 제시한 후의 유아의 반응을 유도하는 전 과정

을 관찰하면서 면접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였고, 검사 후 보조연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유아 개별 면접을 하였고 검사 소요 시간은 1명당 15~20분 정도였다.

(2) 사회적 능력 검사

본 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도구에 대한 적절성과 문제점,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들이 각 문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검사 소요시간은 1명당 10~15분 정도였다. 각 유아는 일대일로 개별면접 하였으며 검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검사 중 장명 이외에 불필요한 대화나 암시적 단어의 사용은 삼가했다. 유아의 반응에 대해서는 유아가 언어적으로 반응한 것을 그대로 기록표에 기록하였다.

(3) 질문지 조사

전 보육경험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낸 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부모가 질문에 2곳 이상 응답하거나,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기입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3) 본 연구

본 연구는 2005년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6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본 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는 연구대상 어린이집 10곳을 각각 3차례 방문을 하였다.

(1) 유아 애착유형 검사

총 10곳의 어린이집에서 표집된 유아들을 기관으로 방문하여 1차 방문 시 애착유형 검사를 하였고, 연구대상의 보육경험 및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교사에게 전달하여 어머니에게 보내 회수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애착 검사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 동안이며 어린이집의 자유놀이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장소는 어린이집의 조용한 곳으로 빈 활동실 및 교실을 이용하고, 교실에는 어린이용 탁자와 의자를 준비하였으며 연구 도구는 가족인형(어머니, 아버지, 두 자녀-자매/형제-, 할머니)과 소품(테이블, 작은 접시들, 케익, 잔디, 바위, 작은 침대, 자동차), 유아 반응 기록표, 펜, 녹음기, 보조 연구도구 등이다. 유아가 들어오면 가볍게 인사하고 유아의 이름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연구자와 유아가 탁자에 마주앉아 이야기 과제를 시행하였다. 유아에게 가족인형을 유아의 가족에 맞게 이야기 해줌으로써 유아가 인형을 친숙하고 동일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야기 과제는 생일파티 이야기로 시작되어 유아의 반응을 반응 시에 즉시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평정이 안 되는 반응에 대해서는 면접이 끝난 후 전사하였다. 한 유아 당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부분 15~20분 정도였으나 예외적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2) 사회적 능력 검사

2차 방문 시 이루어진 사회적 능력 검사는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3주에 걸쳐 이루어졌고 어린이집의 자유놀이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장소는 어린이집의 조용한 곳으로 빈 활동실 및 교실을 이용하였고, 연구자와 유아가 개별 면접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유아의 반응을 즉시 기록하였다.

(3) 보육경험 설문지 조사

유아의 보육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어머니용 질문지는 유아 면접이 실시되는 동안 유아의 가정으로 보낸 후 회수하였다. 총 200부를 배부하여 152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76.0%이었다. 이 중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분석에 사용되기 어려운 질문지를 제외한 11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 Window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둘째, 유아의 애착유형(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에 따라 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 보육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 하였다.

셋째, 보육경험(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 보육시간)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어떠한 변수가 사회적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애착유형에 따른 보육경험

1) 애착유형에 따른 보육시작 시기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보육시작 시기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보육시작시기

N=118			
애착유형	평균 보육시작 시기(개월)	표준편차	t
안정애착 (N=69)	32.22	13.528	3.277*
불안정애착(N=49)	23.90	13.680	

*p<.05

표 7에 의하면 애착유형에 따른 보육시작 시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77$, $p\leq.05$). 안정애착 유아는 69명, 불안정애착의 유아는 49명이며 유아가 안정 애착일 경우 보육시작 시기는 평균 32.22개월부터 보육을 시작했으며, 불안정 애착일 경우 평균 23.90개월로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인 경우가 불안정애착인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늦게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2) 애착유형에 따른 총 보육기간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총 보육기간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총 보육기간

애착유형	평균 총 보육기간(개월)	표준편차	t
안정애착 (N=69)	21.84	11.262	-2.793*
불안정애착(N=49)	28.04	12.711	

*p<.05

표 8에 의하면 애착유형 따른 총 보육기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93$, $p\leq.05$). 안정애착 유아는 69명, 불안정애착의 유아는 49명이며 유아가 안정 애착일 경우 총 보육기간은 평균 21.84개월을 나타냈으며, 불안정 애착일 경우 평균 28.04개월의 보육기간을 나타냈다. 즉 불안정애착인 경우가 안정애착인 유아보다 총 보육기간이 길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 애착유형에 따른 주당 보육시간

연구대상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주당 보육시간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주당 보육시간

애착유형	평균 주당 보육시간	표준편차	t
안정애착 (N=69)	39.91	11.539	-2.167*
불안정애착(N=49)	45.94	16.861	

*p<.05

표 9에 의하면 애착유형에 따른 주당 보육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67, p \leq .05$). 안정애착 유아는 69명, 불안정애착의 유아는 49명이며 유아가 안정 애착일 경우 주당 보육시간은 평균 39.9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일 경우 평균 45.94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애착인 경우가 안정애착인 유아보다 주당 보육시간이 길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안정애착인 경우가 불안정애착인 유아보다 보육시작 시기가 늦으며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은 짧게 나타났고, 불안정애착인 유아가 안정애착인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빠르며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2. 보육경험에 따른 사회적 능력

연구대상 유아의 독립변인으로 보육경험 변인인 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 보육시간을 투입변수로 하고, 종속변인에 사회적 능력을 투입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보육경험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R ²	F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7.909**	.364		.323	55.308
	총보육기간	.092**	.011	.568		
2	(상수)	6.119**	.998		.452	47.339
	총보육기간	.075**	.018	.465		
	주당보육시간	.052**	.021	.373		
3	(상수)	6.751**	.954		.454	31.633
	총보육기간	.063**	.016	.392		
	주당보육시간	.052**	.019	.375		
	보육시작시기	-.012	.010	-.089		

** p<.01

표 10은 보육 경험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회적 능력} = 6.751 + .063(\text{총보육기간}) + .052(\text{주당보육시간}) - .012(\text{보육시작})$$

위 식에서 총 보육 기간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사회적 능력은 .063이 증가하며 주당보육시간이 한 단위 증가 할 때마다 사회적 능력은 .052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작 시기는 단위증가 마다 -.012가 증가하나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다. 즉 보육경험이 사회적 능력에 대한 모델 설명력은 45.4%(R²=0.454)이며 총 보육 기간과 주당 보육시간

이 증가할 때마다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작 시기는 사회적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세 유아의 보육경험(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보육 시간)과 애착유형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인성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기에 보육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의 안정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보육시작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애착유형은 보육시작 시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의 보육시작 시기는 1세 미만인 11.9%, 1세 이상 2세 미만인 23.7%, 2세 이상 3세 미만인 22%, 3세 이상이 42.4%이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보육시작 시기가 평균 32.22개월이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보육시작 시기가 평균 23.90개월로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 유아일수록 불안정애착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늦게 나타났고 불안정애착 유아일수록 안정애착인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빠르며 나타났다. Blehar(1974)는 생후 30개월에서 40개월 사이에 보육을 경험하는 유아가 가정에서 양육되는 유아보다 낯선 상황에서 회피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이것은 불안정하게 애착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생후 6개월 이전의 보육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족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애착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Brazelton(1985)과 생후 1년 이내에 보육을 시작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친다는 Belsky(1988)와 Vaughn의 동료들(1985)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insworth(1978)는 생후 6개월 이전에 보육을 시작하는 경우 영아가 아직 애착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격리에 대해 스트레스가 적으며 또 격리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아 안정애착 형성에 방해를 덜 받는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 박영하(2004)도 8개월 이전에 타인양육은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김영명(1997)은 6개월 이후에 보육을 시작하는 것이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보육을 받기 시작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허운진(2002)은 유아가 부모와 처음으로 분리되어 양육된 시기를 2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2세 이전에 분리를 경험한 아동들이 2세 이후에 분리를 경험한 아동들에 비해 더욱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보육시작 시기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보육시작 시기의 영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유아의 애착유형에 보육시작 시기가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육시작 시기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가정환경변인 등 애착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영명, 1997).

둘째,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총 보육기간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애착유형은 총 보육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총 보육기간이 평균 21.84개월이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총 보육기간이 평균 28.04개월로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 유아일수록 불안정애착 유아보다 총 보육기간이 짧게 나타났고,

불안정애착 유아일수록 총 보육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총 보육기간이 길수록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육시작 시기가 빨랐을지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으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으나, 보육시작 시기가 빠르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육경험을 하고 있는 경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애착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많은 시간을 탁아경험을 한 경우 불안-회피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Lamb, Sternberg, & Prodromidis, 1992; England & Hiester, 1995; Belsky & Rovine, 1988)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Bowlby(1973)도 생후 3년 이내에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돌보아지는 초기 격리경험은 어머니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운 내적 표상을 갖게 하며 자신 욕구 충족을 위한 어머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어 어머니를 불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김숙령(1996)은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탁아경험이 적으며 현재의 탁아의 질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고 질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강조하면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높다면 보육경험에 있어 심리적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Mccartney, Scarr, & Howes, 1987)와 보육경험이 유아의 특성 및 가족특성과 상호작용 하여 안정된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NICHHD, 1997).

셋째,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주당보육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아의 애착유형은 주당보육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주당보육 시간이 평균 39.91으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일수록 주당보육 시간이 평균 45.94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 유아일수록 불안정애착 유아보다 주당보육 시간은 짧게 나타났고, 불안정애착 유아일수록 안정애착인 유아보다 주당보육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보육기관에서 1주일 동안 오랜 시간 보육

경험을 한 유아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나타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유아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안정된 애착형성을 어렵게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주당 20시간 이상의 보육경험을 가진 영아가 20시간 이하의 보육경험을 가진 영아보다 더욱 불안정한 애착으로 분류되었다는 연구결과(김민정, 1990)와 종일제 타인양육을 받는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과 기본적인 불신감 및 불안-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한(Belsky, 1988; Belsky & Rovine, 1988; Barglow, P., Vaughn, B. E., & Molitor, N, 1987)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ICHD(1997)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중 생후 1년에 10시간 이하의 타인 양육을 받고 있는 집단의 경우 66%가 안정애착이며, 34%가 불안정한 애착으로 나타났으며 양연숙(2000)의 연구에서도 주당 평균적으로 54.1시간의 타인 양육을 받는 영아의 63%가 안정애착이며 불안정 애착은 27%으로 나타나 보육 시간의 정도에서 벗어나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 밝혀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보육경험의 정도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총 보육기간, 주당 보육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육시작 시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이 길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찍 부터 보육기관에서 집단경험을 한 유아가 친구와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면서, 교사의 지도나 훈육에 의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타협 또는 협상과 같은 상호작용 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유아가 긍정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놀이 참여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Clarke-Stewart(1982)의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Clarke-Stewart(1982)의 의하면 탁아시설에 다닌 유아와 가정에서 양육된 유아를 낯선 아이와 짝지어 실험실 놀이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호작용 형태를 관찰한 결과 탁아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더 사교적이었고 협력적이었으며, 상호작용의 질도 복잡하고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였으며, 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적응을 더 잘 하였고 주어진 학업에 더 끈기 있고 지도자처럼 행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oyle(1975)와 Lewis 와 그 동료들(1975)은 평소에 익숙한 또래들과의 지속적 놀이 경험은 사회적 기술이 진보될 연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런 놀이 경험은 서로 간의 모방을 하며, 놀이짝들은 더 잘 나눠가지고 즐거워하며 다른 친구들은 장난감도 덜 빼앗는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보육시설에 적응을 잘 하며(백경미, 1996), 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유아들이 다소 독단적이긴 하지만 덜 방관적이고 혼자놀이를 덜하며 더 협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또래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였고(Field, T, Masi, W, Goldstein, S, Perry, S and Parl, S, 1988), 보육시설에서 또래 경험이 많은 유아일수록 놀이실에서 또래 상호작용을 보다 능숙하며 긍정적이었다(NICHHD, 2001)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들은 많은 유아와 상호작용 하는 기회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Haskin(1985)은 탁아시설에 다니는 유아들이 더 시끄럽고 경쟁적이며 공격적이었고, 덜 공손하고 동조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보육경험의 전체 기간이 긴 경우 또래와 사이 좋게 지내는 능력이 적었으며 보다 자기 주장적이고 공격적·적대적이라고 하였으며 동료를 거부하며 놀이형태에서도 배회, 방관자적 행동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미자, 1996; 김숙령, 1997; 박경자, 1991). 한편 양연숙, 조복희(1996)는 보육경험 및 가족특성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에서 보육시작시기가 늦을수록, 경험기간과 이용시간이 짧을수록, 보육안정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 때 영유아는 보육시설의 질이 낮은 경우보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여 자기 통제력이 높고 덜 반항적이며 성인의 지시에 협조적이고 사려 깊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김정인, 2001; Hagekull., & Bohlin, G, 1993; Howes, C., Phillips, D.A., & Whitebook, M. 1992).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많은 유아들이 또래와 상호작용 하는 기회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것은 보육의 질이 우수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가 가지는 보육경험은 유아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었으며 보육경험이 중요한 만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강조된다. 보육기관은 유아들이 또래와 더불어 생활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곳이므로 유아들이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은 영유아를 비롯한 성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며 장래 이 사회의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육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보육관계자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호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보육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 유아일수록 불안정애착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늦으며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은 짧게 나타났고, 불안정애착 유아일수록 안정애착인 유아보다 보육시작시기가 빠르며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가 보육을 경험한 정도 보육시작 시기, 총 보육기간, 주당보육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총 보육기간과 주당보육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즉 보육시설에서 지낸 보육경험과 주당 보육시간이 길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생후 초기부터 많은 보육경험을 한 유아들은 집단생활을 통해 많은 유아와 상호작용 하는 기회를 갖으며 사회적 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육경험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을 보육경험의 양적인 영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특히 주당보육 시간에 있어서 현재 유아가 1주일 동안 보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합만을 측정하여 분석하였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거의 보육시간을 측정하여 추적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경험의 질적인 측면(구조적 측면에서의 학급크기, 교사와 유아의 비율, 교사의 학력과 경력, 시설 및 놀이감 등과 과정적 측면에서의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에서의 교사의 행동)을 연구에 포함시켜 유아의 애착유형 및 사회적 능력의 심층적인 면을 살펴보는 연구, 유아의 개별적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 가정환경변인 등 애착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집은 서울지역의 소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따라서 폭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표집 대상 수도 더 늘여서 후속연구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애착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인 영유아기의 오랜 보육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에서 출산 후 1년까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형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적으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의 근무시간 조정 및 직업공유나 파트타임과 같은 사원정책,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하여 좀더 어린 영아들은 보육시설에 오기 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가정보육도우미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영아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보다 양질의 보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적 보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보육비용과 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위한 정책 변화에 가족 및 아동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와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및 국가기관과 보육제공자들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영유아기 발달이 인생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과 실제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 놓인 부모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모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날 핵가족 시대에 자녀 양육을 접하는 아버지 비중이 증대함을 인식시켜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와 배려가 국가와 사회의 민간 및 공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주(2004).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자(1996). 영유아기 타아경험이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1998). 유아와 교사의 기질에 따른 유아-교사간 애착 안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령(1996). 영·유아의 보육경험과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재고. **한국영유아보육학(5)4**, 1061-1084.
- 김숙령(1997). 영유아기 타아경험과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8(2)**, 5-18.
- 김숙령(2004).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애착의 임상적 의미. **한국영유아보육학 37**, 171-194.
- 김영명(1997).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 이순형(1999). 애착 대상과 보육시작 시기에 따른 유아의 애착안정성. **한국영유아보육학 17**, 429-451.
- 김영모 외(1998). 선진국 아동보육 제도와 보육 프로그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은주(2004). 유아와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과 사회적능력의 관계. 서울신학대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200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인(2001).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친

-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원(2000).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자아지각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숙영(1998). 탁아경험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3**, 51-62.
- 박연순(2004).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비교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하(2004). 양육경험에 따른 유아의 애착안정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현(2001). 가정환경 및 보육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미(1996). 영유아의 중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문옥(1999). 유아의 애착 안정성과 과제수행시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원(2004). 3-4세 유아의 애착 행동과 애착 표상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연숙, 조복희(2001a). 타인양육 영아의 정서조절: 격리 및 타인양육특성과 어머니 및 영아의 특성의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39(3)**. 67-81.
- 양연숙, 조복희(2001b).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학회지, 22(1)**, 51-66.
- 양연숙, 조복희(1996). 탁아기관의 질, 탁아경험 및 가족특성과 유아의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81-193.
- 양외점(1993). 유아의 애착유형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성애(2003). 영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 영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경험 및 보육의 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부(2005). 2005년 보육사업 안내.

오종은(2001). 영아의 애착 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 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숙(1996). **영유아 프로그램 평가척도**. 서울: 창지사

이남주(1999).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분석 및 보육경험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소희(2005). **보육학개론**. 양서원.

이순형 외(2004).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키우기**. 학지사.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효순(2001). 유아의 애착안정도와 부모의 애착 및 양육태도와의 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34**, 451-467.

정현희(2004).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원(1999). 영아시설 영아와 보육사간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방제(1996). 어린이집 보육경험이 취학 후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조영화(2004). 또래간 칭찬하기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진(2004).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가족특성, 보육경험 및 기질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봉옥(2000). 유아의 유치원 이전 교육경험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아(2001). 보육경험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박혜원(2000). 보육환경(보육시설 및 교사)이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2(1)**, 73-87.
- 최혜순(2004). **유아사회교육**. 동문사.
- 하지영(200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남녀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진(2002). 어머니와의 분리경험과 타인 양육의 특성이 모-자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환(2003) 보육시설 보육경험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논총집 14**, 23-25.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 E., & Wall, W.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 J. : Erlbaum.
- Andersson, B. E. (1989). Effects of public *day car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0, 857-866.
- Andersson, B. E. (1992). Effects of day care o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of thirteen-year-old Swedish school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20-36.
- Aureli, T., & Procacci, M. A.(1992). Day-care experience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3, 45-54.
- Barglow, P., Vaughn, B. E., & Molitor, N. (1987). Effects of maternal absence due to employment on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low-risk sample, *Child Development*, 58, 945-954.

- Bates, J., Marvinney, D., Kelly, T., Dodge, K., Bennett, R., & Petti, G.(1994). Child-care history and kindergarten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30*, 690-700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D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pp.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lehar, M. (1974). Anxious attachment and defensive reactions associated with day care. *Child Development, 45*, 683-692.
- Belsky, J.(1984). Two waves of day care research: Developmental effects and conditions of quality. In R. Ainslie(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pp. 1-34). New York: Prager.
- Belsky, J.(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 1-9.
- Belsky, J.(1988). The "effect"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3)*, 235-272.
- Belsky, J., & Cassidy, J. (1994).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M. Rutter & D. Hay(Eds.), *Development through life*. 373-402 Oxford: Blackwell.
- Belsky, J., & Eggebeen(1991). Early and extensive maternal employment and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1083-1110.
- Belsky, J., & Rovine, M. J. (1987). Temperament attachment security in the Strange Situation: An experimental rapprochement. *Child Development, 58*, 787-795.

- Belsky, J., & Rovine, M. J. (1988).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57-167.
- Brazelton, T. B. (1985). *Working and Caring*.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in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oberg, A., G. (1993). Inhibition and children's experience of out-of-home care.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pp. 151-176). Hillsdale, NJ: Erlbaum.
- Burchinal, M., Roberts, J., & Bryant, D. (1996). Quality of center child care and infant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7, 606-620
- Cardwell, B. M., A comprehensive model for integrating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90: 1989, 405-414.
- Clarke-Stewart, K. A. (1984). Day care: A new contex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 Permuter (Ed.).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 Clarke-Stewart, K. A.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reconsidered: Risks for parents, children, and research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93-318.

- Clarke-Stewart, K. A. (1989). Infant day care: Malignant or Maligned? *American Psychologist*, 44, 266-273.
- Connolly, K. & Bruner, J. (1974). Competence: Its nature and nurture. *The growth of competence*(pp, 3-7). London: Academic Press.
- D. B. Fink, School-age(1988). *Children with Special Needs*, Boston ; Exceptional Parent Press, p. 62.
- Doyle, A. B.(1975). Infant development i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655-656.
- Field. T, Masi. W, Goldstein. S, Perry. S and Parl. S(1988), Infant day care facilities preschool social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341-359.
- Foster, S. L., & Ritchey, W. L. (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25-638.
- Goelman, H., & Pence, A. (1987). Effects of child care,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In D.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What does research tell us?*(pp. 89-104).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arper, L., & Huie, K. (1985). The effects of prior group experience, age and familiarity on quality and organization of preschool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3), 704-717.
- Haskins, R. (1985). Public school aggression among children with varying day care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56, 689-703.
- Hagekull., & Bohlin, G. (1993). Day care quality,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Early Childhood*

- Research Quarterly*, 10, 505-526.
- Hegland, S. M., & Rix, M. K. (1990). Aggression and assertiveness in kindergarten children differing in day care experie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105-116.
- Hoffman, L. W. (1984). Maternal employment and the child. In M. Perlmutter(Ed).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 in development*(pp. 101-127). Hollsdale, NJ: Erlbaum.
- Honing, A. S., & Park, K. J.(1993). Effects of day care on preschool sex-role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81-486.
- Howes, C.(1988).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 care and schooling. *Development Psychology*, 24, 53-57.
- Howes, C.(1990). Can the age of entry into child care and quality of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92-303.
- Howes, C., & Hamilton, C. E(1993). Child care for young children. In B. Spodek,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Howes, C., & Olenick, M. (1986). Family and child care influences on toddler's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7, 202-216.
- Howes, C., Phillips, D.A., & Whitebook, M.(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 449-460.
- Howes, C., & Smith, E. W(1995). Relations among child care quality, teacher behavior, children's play activities, emotional securities, and cognitive activity in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381-404.

- Howes, C., & Unger, O. A. (1989). Play with peers in child care settings. In M. Bloch & A. Pellegrini(Eds.), *The ecology of children's play*(pp. 104-119). Norwood, NJ: Ablex.
- Kim, S. R.(1992). *Day care and the family as predictors of children's development*.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Lamb, M. (1988). Nonparental child care: Context, quality, correlate, and consequences. In I. Sigel & K. Renning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4: Child psychology in practice*(pp. 73-134). New York: Wiley.
- Lazer, I., Hubbel, B. R., Murray, H., & Royce, J. (1977). *Persistence of preschool effects: Final report*. Washington, D. C. Office of Human Development Series,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L. B. Costin(1972). *Child Welfare ; Policies and practice*, New York ; Mcgraw Hill Book Company, 72
- Macrae, J. W., & Herbert-Jackson, E. (1976). Are behavior effects of infant day care program specific? *Developmental Psychology, 12*(3), 269-270.
- MacCartney, K. (1984). Effects of quality of day-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44-260.
- MacCartney, K., Scarr, S., Phillips, D., Grajek, S., & Schwarz, C. (1982). Environmental differences among day care center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In E. F. Zigler & E. W.

Gordon(Eds.), *Day care: Scientific and social policy issues*, 126-151. Boston: Auburn House.

MacCartney, K., & Rosenthal, S. (1991). Maternal employment should be studied within social sc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103-1107.

Matas. L., &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a).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onmaternal care for infa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2), 389-408.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7b).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879.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1999). Child Care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the first 3 years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5(6), 1399-1413.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1). Child Care and children's peer interaction at 24 and 36 months: The NICHD Stud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al* 72(5), 1478-1500.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2003). Does Amount of Time Spent in

- Child Care Predict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4, 976-1005.
- Park, K., & Hoing, A.(1991). Infant child care patterns and later teacher ratings of preschool behavio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8, 89-96.
- Phillips, D., MacCartney, K & Scarr, S(1987). Childcare quality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37-543.
- Pianta, R. C., & Cox, M. J. (1999).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Baltimore: Brookes.
- Prodromidis, M., Lamb, M., Sternberg, K., Hwang, C., & Broberg, A. (1995). Aggression and noncompliance among Swedish children in center-based care, family day care, and home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 43-62.
- Richters, J., & Zahn-Waxler, C. (1990). The infant day care controvers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N. Fox, & G. Fein(Eds.), *Infant day care: The current debate*(pp. 87-106). Norwood, NJ: Ablex.
- Roff, M., Sells, S. B., & Golden, M. M. (1972). *Soci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ubenstein, J., & Howes, C. (1979). Caregiving and infant behavior in day care and in h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4.
- Scarr, S.(1998). American child care today. *American Psychology*, 10, 502-506.
- Schneider, B. H. (199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ontext: The*

contributions of family, school and culture. New York: Pergamon Press.

- Schindler, P. J., Moley, B. E., & Frank, A. L.(1987). Time in day car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255-261.
- Schipper, J., Tavecchio, L. W. C., van IJzendoorn, M. H., & Linting, M. (2003). The relation of flexible child care to quality of center day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functioning: A survey and observational study.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6*, 300-325.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Thompson, R. (1988). The effects of infant day care through the prism of attachment theor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273-282.
- Vandell, D. L., & Corasaniti, M. A.(1990).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4), 555-572.
- Vandell, D., & Powers, C. (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293-300.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Serial No. 209), 41-65.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Day-care Experience, Attachment Patterns and Social Skills

Kang, Yu-S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jor variables influencing attachment patterns and social skills of this three-year-old children, who are spending much of their at daycare center during an important of personality of development, in order to understand children's stable attachment and social skills to development appropriate strategies for these developments.

For the purpos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hat are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daycare experiences by their attachment patterns?
2. How does the children's daycare experiences influence on their social skill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18 three-year-old children, along with their parents and ten teachers of the children who were enrolled in ten daycare centers from Kang-dong district, Young-deung-po district, and Joong-rang district of Seoul.

Three measurements were used in this study. First, the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 (Bretherton, 1990), which was translated by Lee(2001), was used to investigate children's attachment. Second, the Skill Situation Measure (McGrinnis & Goldstein, 1990), which was translated by Lee, Park, and Roh (1993), was used to examine social skills of children. Third, the questionnaire of children's daycare experiences (cho, 2004) was revised and used identify issues regards children's daycare.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the SPSS 12.0 Window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children's attachment patter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daycare experiences in terms of the initiation of the program, the amount of weekly time spent, and the amount of total daycare experiences. Specially, the children who stable attachment had late initiation of daycare program, spent little time in daycare per week, and had short total periods of times in daycare.

Second, the children's daycare experienc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ren's social skills. Children's weekly time spent in daycare and total period of time in daycare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hildren's social but the initiation of the daycare program did not have any relations.

부 록

<부록 1> 어머니용 설문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유아의 보육경험의 양)

<부록 2>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ASCT)

<부록 3> ASCT Coding Manual

<부록 4> 코딩 기록지

<부록 5> 친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

<부록 6> 친 사회적 기술 검사 반응범주(채점기준)

부록 1. 보육경험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만 3세 유아의 보육경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육경
험을 어머니로부터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해 주시는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약
속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를 바랍니다.

완성된 질문지는 가능한 한 1월 24일까지 어린이집으로 다시 보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2005년 1월 13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지도교수 : 장 영 희

연구자 : 강 유 선

I. 유아에 관한 문항입니다.

1.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성별: 남 _____ 여 _____

2. 현재까지 귀하의 자녀가 경험했던 양육 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처음 또는 다른 시설(사람)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긴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생후 _____년 _____개월

(2) 현재까지 부모님 이외에 아이를 돌봐주었던 시설(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놀이방, 어린이집, 할머니, 외할머니, 이모, 베이비시터, 친척 등)

- 출생 후 ~ 6개월 _____
- 6개월 ~ 만 1세 _____
- 만 1세 ~ 만 2세 _____
- 만 2세 ~ 만 3세 _____
- 만 3세 이후 _____

(3) 현재 일주일에 며칠동안 다른사람(또는 시설)에 자녀를 맡기십니까?

① 2~3일 ② 4일 ③ 5일(월~금) ④ 6일(월~토) ⑤ 7일

(4) 현재 하루 평균 몇 시간을 다른사람(또는 시설)에게 자녀를 맡기십니까?

하루평균 _____시간

II. 다음은 부모님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어머니와 아버님의 연령은? _____세 _____세

2. 어머니와 아버님의 학력은? (어머니: _____) (아버지: _____)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이상

3. 가족관계: 정상가족(), 편부모가족(), 이혼 및 별거가족()

4. 어머니와 아버님의 직업은? (어머니: _____) (아버지: _____)
① 노무직(잡역부, 미화원, 행사, 비숙련공 등)
② 기능직(조리사, 미용사, 생산근로자 등)
③ 판매·서비스직(판매·영업사원 등)
④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기타 사무관련직)
⑤ 자영업(도소매업, 음식점운영, 자영기술, 기능인 등)
⑥ 전문직(교수, 법조인, 의사, 간호사, 작가, 예술인, 언론인 등)
⑦ 관리직(회사 관청 과장이상, 직원 10인 이상 기업가 등)
⑧ 농어민(부농, 중농, 소농, 빈농, 농업노동자, 품일꾼, 어민)
⑨ 기타(주부, 학생, 기타 분류 불능 직업)

5. 보너스를 포함해서 가정의 월 평균 총수입은 대략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부록 2. 애착이야기 완성과제

1. 이야기 내용

1) 연습 이야기: 생일파티 이야기

준비물

: 엄마, 아빠, 할머니, 두 아이(형과 동생), 탁자, 모형케이크, 작은 접시들

검사자: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탁자가 필요해. 그리고 이것(케이크)도 필요하고.... (케이크를 가리키며) “이것이 뭐지?”

“그래, 생일 케이크이지. 이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검사자: “어니 날, 엄마가 아주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사 오셨어.

그리고 식구들을 부르셨단다”

엄 마: “할머니, 아빠, 어서오세요. 애들아, 어서 오렴. 생일 파티 하자”

검사자: “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2) 애착 관련 이야기

이야기 1. 주스를 엮질렀어요

준비물: 엄마, 아빠, 두 아이(형과 동생), 탁자, 컵, 접시, 그릇 등이 담긴 소꿉놀이 소품 상자

검사자: “좋아,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실게”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한단다”

(소꿉놀이 소품상자를 흔들어 보이며)“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을 차리는데, ○○가 도와줄 수 있겠니?”

(소꿉놀이가 담긴 소품 상자를 유아에게 주고 유아가 식탁을 차릴 때까지 기다린다. 필요하다면 돕는다).

검사자: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단다. 그런데 동생 태현(지혜)이가 주스를 마시려고 하다가, (동생이 컵을 넘어뜨리며) 주스를 엮지르고 말았어”

검사자: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선생님한테 보여줄래?”

이야기 2. 무릎을 다쳤어요

준비물: 엄마, 아빠, 두 아이(형과 동생), 잔디, 바위

검사자: “여기는 공원이야. ○○는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에 가본 적이 있지? “어느 날, 가족들이 공원에 산책을 갔단다. 이 공원에는 이렇게 높은 바위가 있었어”

“그런데 동생 태현(지혜)가 바위를 올라가는 거야”

동 생: (동생이 열심히 바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엄마, 아빠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높은 바위를 올라가고 있어요... 헉헉...”

검사자: (동생을 엮어뜨리며) “그런데 그만 동생이 무릎을 다쳤어”

동 생: (우는 소리로) “엉엉... 무릎을 다쳤어요”

검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선생님에게 보여줄래”

이야기 3. 내방에 피물이 있어요

준비물: 엄마, 아빠, 두 아이(형과 동생), 침대, 담요

검사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자 잘 들어 보렴”

엄 마: (엄마가 동생 인형 쪽을 향하게 하고, 말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인다) “잠잘 시간이다. 이제 네 방에 가서 잠을 자야지”

아빠: (엄마와 같은 동작으로) “지금 가서 자야지”

동생: (침대 쪽으로 걸어가며) “알았어요, 잠자리 갈게요”

검사자: “○○가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동생: (놀란 목소리로) “엄마, 아빠, 내 방에 괴물이 있어요! 내 방에 괴물이 있단 말이에요!”

검사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에게 보여 주렴”

이야기 4.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준비물: 엄마, 아빠, 두 아이(형과 동생), 할머니, 잔디, 자동차

검사자: “여기는 집 앞이고, 차가 있단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차야”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할머니를 바라보게 하고, 유아 앞 쪽에 차를 둔다)

검사자: “자, 여길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여행을 가시려 하는 것 같구나”

엄마: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 하며 움직인다) “얘들아, 아빠 엄마가 여행을 가려고 한단다. 우린 지금 떠나야겠구나”

아빠: (아빠가 엄마처럼 조금씩 움직인다) “내일 보자. 할머니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야”

검사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렴”

이야기 5.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준비물: 엄마, 아빠, 두 아이(형과 동생), 할머니, 잔디, 자동차

검사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와 집에 있는 아이 인형들 간에 거리가 있게만 둔다)

“좋아, ○○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니?”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
신 다음날, 할머니께서는 창밖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머니: (할머니가 차를 바라보고 말한다) “얘들아, 이리 와 바라. 엄마, 아
빠가 여행에서 돌아온단다.”
검사자: “아빠 엄마가 탄 자동차를 집을 향해 운전해 보렴”
검사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 해 주겠니?”

부록 3. ASCT Coding Manual

애착 유형의 질적 분석 기준(Goodman, Andrews, & Jones, 1992)

이야기 1: 쥬스를 엮질렀어요

① 안정 애착 기준

이야기가 엮질러진 쥬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쥬스를 닦는다. 어머니나 할머니가 화를 내거나 혼욕하는 것이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다.

② 불안 - 회피 애착 기준

엮질러진 쥬스 이야기가 회피, 무시되거나 주인공이 쥬스를 엮지른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가족이 쥬스를 엮지른다.

③ 불안 -비조직 애착 기준

쥬스 이야기에 대해 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 극단적인 처벌, 화를 내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야기 2: 무릎을 다쳤어요

① 안정 애착 기준

가족원 중 한 사람(다른 아이 포함)이 주인공의 고통에 반응한다. 안아주거나 붕대를 감아주거나 아이를 병원이나 집에 데려 가는 등, 고통이 인식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다른 가족원이 바위에 올라가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고통이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불안 - 회피 애착 기준

다친 무릎에 대한 주제가 회피되거나 무시된다. 다른 가족원이 바위에 올라

가 무릎을 다치거나 혹은 다른 무릎에 대해 언급되지 않는다. 무릎을 다친 주인공을 혼내거나 처벌한다. 다친 무릎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③ 불안 - 비조직 애착 기준

다친 무릎에 대해 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상처나 가족원의 죽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야기 3: 내방에 괴물이 있어요

① 안정 애착 기준

어머니나 할머니가 괴물에 대한 주인공의 공포를 알아채어 해결해주거나 혹은 주인공이 안정감을 구하기 위해 가족원에게 접근하고, 결국 유아가 잠이 들 수 있다.

② 불안 - 회피 애착 기준

괴물 주체가 회피되거나 무시된다. 다른 가족원이 괴물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채, 무서워하는 주인공을 혹평하거나 조롱할 수 있다. 혹은 주인공이 혼자 힘으로 괴물을 제거할 수 있다. 없애버린 괴물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이는 이야기의 핵심주제에 대한 해결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③ 불안 - 비조직 애착 기준

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괴물이 폭력적으로 주인공이나 엄마, 할머니를 죽이거나 패배시키는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다.

이야기 4: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어요

① 안정 애착 기준

주인공이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반응에서 대처하는 행동이 보인다. 어머니를 찾거나 할머니나 동생과 놀거나 잠을 자는 등의 행동 또는 어머니와 함께 남으려고 하거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우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② 불안 - 회피 애착 기준

격리 주제가 회피되거나 무시된다. 어머니가 떠나 있는 동안 아이가 하는 행동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가 심하게 주인공을 처벌한다. 또한 4번의 질문을 한 다음에야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한다.

③ 불안 - 비조직 애착 기준

격리 이야기에 대해 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을 할 경우, 여기에는 주인공이 할머니를 때리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야기 5: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① 안정 애착 기준

가족원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를 포옹하거나,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공동의 가족 활동을 수행한다. 핵심 주제에 대해 단 한번의 질문만이 주어질 수 있다.

② 불안 - 회피 애착 기준

재결합 주제가 회피, 거부, 무시되는 경우이다. 즉 면접자가 어머니가 집에 오신 후에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2번 이상 핵심주제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주인공의 재결합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다.

③ 불안 - 비조직 애착 기준

재결합 이야기에 대해 괴상하고 비조직적인 반응, 즉 주인공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가족원들 간의 원활하지 못한 대화, 가족원이 차를 타고 떠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록 4. 애착이야기 완성 과제 기록지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 기록지

이름: 성별: 연령: 면접자: 날짜:		
이야기	이야기 내용 요약	애착유형분류
이야기 1		
이야기 2		
이야기 3		
이야기 4		
이야기 5		
비고		

부록 5. 친 사회적 기술 검사도구

1. 석진이가 놀이감 차를 갖고 놀다가 친구에게 빼앗겼어. 이 때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2. 영희는 앞이 가려서 영화가 안 보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3. 선생님이 카펫 위에 조용히 앉으라고 하시는데 영희는 어떻게 해야할까?

4. 선생님이 구슬뿔기를 주었을 때
영희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5. 영희는 가위가 필요한데 어디 있는지
몰라. 선생님께 여쭙어 보려고 하는데
다른 아이하고 책을 읽고 계셔.
어떻게 할까?

6.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7. 석진은 친구가 공을 넣는 동안
차례를 기다리며 어떻게 하여야
할까?

8. 친구가 슬피하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9. 놀이감이 다 지은이 앞에만 있어.
그런데 친구도 그 놀이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둘다 그 놀이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10. 친구가 물건을 많이 갖고 가서
문을 열 수 없어. 어떻게 할까?

11. 영희와 지은이는 매우 친한 친구야.
그런데 지은이가 오늘은 영희와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놀고 있어서 영희는
기분이 나빠.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2. 석진이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이럴 때 석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13. 친구가 와서 “돼지야” 하고
놀렸어. 이럴 때 석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

14. 친구가 유치원에서 공동으로 쓰는
크레파스를 혼자 다 쓰고 있어.
석진이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친구는 “네것으로 해” 하면서 안주는
거야. 이거 공평한 거니?

15. 석진이가 화가나서 친구를 때렸어.
선생님이 “네가 친구를 때렸니?” 하고
물었어. 이때 뭐라고 해야 되겠니?

부록 6. 친 사회적 기술 검사 반응범주(채점기준)

친사회적 행동 검사의 채점은 친사회적 반응, 공격적 반응, 무관련 반응, 무반응 중에서 친사회적 반응에만 1점을 주고 나머지 세가지 반응에는 0점을 주었다.

1. 친사회적 행동의 반응 범주

1) 생각이나 느낌을 용기 있게 말하기

그 장난감 내 것이니 빨리 줘. 내 장난감 돌려줘. 네가 먼저 가지고 놀고 돌려줘. 내 자동차 줄래? 우리 친구잖아. 같이 가지고 놀자.

2) 양해 구하기

앞사람에게 조금 비켜 달라고 한다. 조금 옆으로 가 주시겠어요?

3) 지시에 따르기

카페트 위에 조용히 앉는다. 장난감을 치우고 카페트에 앉는다.

4) 힘들어도 열심히 하기

힘들어도 해본다.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요. 꼭 참고 해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물어봐서 가르쳐준 대로 한다. 연습해서 한다.

5) 상황에 알맞게 부탁하기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선생님께 물어본다. 스스로 찾아본다. 다른 친구나

선생님께 물어본다.

6) 친구들 놀이에 새로 참여하기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나도 좀 끼워줘. 나도 같이 기차놀이하게 해줘.

7)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앉아서 조금 기다린다. 쉬고 앉는다. 다른 놀이를 하면서 기다린다. 친구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기다린다. 친구들이 공 넣는 것을 도와준다. 쉬고 있다.

8) 친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친구를 기쁘게 해준다. 같이 놀아준다. 위로해 준다. 왜 슬퍼하니? 하고 물어본다. 친구의 눈물을 닦아준다. 친구의 가방을 들어준다.

9) 친구와 놀이감을 나누어 가지고 놀기

친구야, 나랑 나누어 가지고 놀자. 친구야, 한번만 하고 줄게. 같이 가지고 놀자고 말하고 같이 사이좋게 논다. 가위, 바위, 보해서 이긴 사람이 한번하고 그 다음 친구가 한다.

10) 친구 도와주기

문을 열어준다. 친구의 짐을 들어준다.

11) 친구로부터 소외당할 때

나도 같이 놀자. 왜 나랑 안노니? 새 친구도 사귀어서 셋이 같이 논다. 나도 친구잖아. 같이 놀자. 순희한테 그 친구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같이 논다.

12) 화가 무조건 날 때

화가 나도 꼭 참는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화를 푼다. 친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 싸운 친구와 화해한다.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화를 푼다. 재미있는 책을 본다. 노래를 부르면서 참는다.

13) 친구가 놀릴 때

친구야, 놀리지 마! 그런 말 쓰면 안돼. 못들은 척 한다. 나 돼지 아니야. 참고 웃는 얼굴을 한다. 자꾸 그러면 너하고 안 놀아.

14) 친구가 공평하지 못할 때

이건 같이 쓰는 물건이니까 가운데 놓고 같이 쓰자. 선생님께서 같이 쓰라고 하셨어. 선생님께 말해서 같이 쓰도록 한다.

15) 잘못된 행동을 한 후 벌을 받을 때

네. 제가 때렸어요. 화가 나서 때렸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때리지 않을게요. 모르고 때렸어요.